

◎ 중앙지·지방지 주요기사 내용

전주매일

2020년 01월 13일 월요일 012면 교육·문화

지난해 관람객 95만명 달성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지역경제 활성화 큰 기여... 볼거리 넘치는 마케팅 활동 크게 작용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방문객이 지난 한해 95만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군산시에 따르면 근대역사박물관에 가면 볼거리가 넘친다는 마케팅 활동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각 전시장을 연계한 스탬프 투어 및 다양한 체험행사 등이 어린이 및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거듭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1년 근대문화 중심도시 군산의 특화 박물관으로 개관한 근대역사박물관은 2015년 전국 공립 5대 박물관으로 선정되고, 2011년 개관 6년 만에 관람객 100만을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지역경제 속에서도 많은 관람객이 꾸준히 찾는 박물관으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박물관

1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굵적굵직한 이력을 남기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만의 특별한은 바로 시민과 함께한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증유물을 포함한 2만 7000여점의 방대한 유물은 바로 시민이 만들어 가는 박물관이라는 역동성을 부여하는 하나의 큰 힘이 되고 있다.

또 100여명이 넘는 근대해설사들은 박물관 운영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데,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근대역사박물관만의 특별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박물관 운영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차별화된 근대문화 공간

시는 조선은행, 18은행, 진포해양테마공원을 박물관 벨트화지역'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지역은 근대역사를 학습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구성돼 관람객들에게 특화된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박물관 내 '1930년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운영되는 근대생활관은 일제강점기 군산에서 가장 변화한 영동거리를 재현하여, 남녀노소 구분없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 곳이다.

박물관 벨트화지역내에서 펼쳐지는 기획전 및 특별전은 연 20여회 이상 개최되는데 박물관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박물관 특별전은 다양한 주제로 열리고 있다.

지난해는 근대기 군산의 경제인 전-근대산업의 거인들, 군산의 동화농민혁명 전, 마음을 그려내다, 석지 채용신 조상화전이 개최됐다.

◇지역예술인들이 만드는 열린 마당

민요 및 판소리, 사물놀이, 버스킹, 인형극, 연극 공연 등 연 300여회 이상 개최되는 문화공연은 근대역사박물관이 시민과 관람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재방문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980년대 일제 무단통치와 경제수탈하의 소시민 삶과 애환을 재현한 연극과 1919년 군산 3·5독립만세 운동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재현한 인형극은 특히나 관람객들에 인기가 많다.

또 음악공연, 미술 공연 등은 수시로 개최되고 있어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외부 공연 무대 또한 열린 공간으로서 시민들의 버스킹 무대가 되고 있다.

박물관은 볼거진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소를

부여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후 9시까지 박물관 본관과 근대미술관, 근대건축관을 개관함으로써 야간관광 활성화에도 역점을 기울였다.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BUY 가맹점 운영

박물관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지 방문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박물관을 다녀간 방문객이 입장권을 제출할 시 가맹점 등록업체에서 판매 금액(현금 10%, 카드 7%)을 할인받을 수 있는 BUY 가맹점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이는 BUY 가맹점 운영을 통하여 군산의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가속하고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는 별도의 할인 혜택을 부여해 박물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5000원 이상 입장권 구매시 금강철새조망대에서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이벤트는 지역 소비촉진의 마중물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방문객 만족도까지 높이고 있다.

박물관의 차별화된 사업들은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박물관으로 거듭나게 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중앙지·지방지 주요기사 내용

전북중앙

2020년 01월 13일 월요일 010면 지역

전북타임스

2020년 01월 13일 월요일
008면 지역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원도심에 활력 톡톡

개관 6년만에 관람객 100만 스텝투어-체험프로 인기 야간개관 관광 활성화 기여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십년이 채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 하면서 불 꺼진 원도심에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 2011년에 개관한 근대역사박물관은 2015년 전국 공립5대 박물관으로 선정되는 등 근대문화 중심도시 군산의 특화 박물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개관 6년 만에 관람객 100만을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지역경제 속에서도 많은 관람객들이 꾸준히 찾는 박물관으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

하지만 수년전부터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관람객 방문이 주춤했으나 군산근대역사박물관만의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 다수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난해에도 방문객을 집계한 결과 95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조사돼 명실상부 군산관광 최고의 명소임을 재확인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각 전시장을 연계한 스탬프 투어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이 어린이 및 초중고 수학여행,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이곳에 있는 2만7천여 점의 방대한 유물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증도 다수 포함돼 있어 시민이 함께하는 박물관이라는 역동성을 부여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100여명이 넘는 근대해설사는 박물관 운영에 자발적으로 동참,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박물관만의 특별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1930년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운영되는 근대생활관은 일제강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기 군산에서 가장 변화한 영동거리를 재현해 남녀노소 구분 없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 곳이다.

이어 박물관 벨트화지역 내에서 펼쳐지는 기획전 및 특별전은 연 20여회 이상 개최되고 있으며, 박물관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특별전은 매분기 다양한 주제로 펼쳐져 인기다.

또 시민열린갤러리 및 장미갤러리 등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곳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 군산 시민 또는 지역소재 단체 등이 작품을 전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재조명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지역 박물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다.

민요 및 판소리, 사물놀이, 버스킹, 인형극, 연극공연 등 연 300여회 이상 개최되는 문화공연도 빼놓을 수 없는데 관람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여기에다 음악과 마술공연 등은 수시로 진행하고 있어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외부 공연무대 또한 열린 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버스킹 무대가 되고 있다.

특히 박물관은 불 꺼진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관람객들

의 편의를 위해 오후 9시까지 박물관 본관과 근대미술관, 근대건축관 등을 개관, 야간관광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전국 최고의 근대 문화유산을 지닌 군산만의 강점을 살려 근대역사박물관을 거점으로 관광 산업화에 노력, 자립도시 군산 건설을 이뤄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연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금강권 전시장(3·1운동기념관, 채만식문학관, 철새조망대 등)으로 연계하기 위해 7개 전시장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전시관의 특색을 반영한 콘텐츠 및 50여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션을 수행하면 선물을 증정하는 스탬프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5000원 이상 입장권 구매 시 금강철새조망대에서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이벤트는 지역 소비촉진에 따른 경제 활성화와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

이런 연유로 지난 2018년 대비 2019년 금강권 전시장 관람객 수가 200%나 증가했으며, 원도심뿐만 아니라 등부권까지 관광의 축을 넓히는데 일조하고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군산형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100명 모집

군산시가 군산사랑상품권을 이용해 연 최대 300만원을 제공하는 '군산형 청년수당' 지원대상자를 모집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군산형 청년수당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군산형 청년수당 지원사업은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을 지원해 고용시장 악화와 어려운 취업난 속에 경제적 부담이 큰 군산지역 청년들에게 도움주고자 지난해 처음 시작해 81명의 청년들을 선발·지원했으며, 그중에 14명이 구직에 성공했다.

올해는 지원대상에 대한 예산을 추가 확보해 100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으로 군산지역 청년들의 보다 많은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산시 거주 만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졸업·종퇴한 지 2년이 경과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청년으로 선정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을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원한다.

신청자의 가구소득, 미취업기간에 따라 1차 정량평가 후 구직활동계획서의 구직의지 및 구직활동계획을 토대로 최종대상을 선발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오는 20일까지 방문접수(시청 6층 일자리창출과)하면 된다. 최종 선발 결과는 1월 말 군산시 홈페이지 공고와 SMS를 통해 안내되며 예비교육을 거쳐 2월부터 6개월간 모바일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하게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형 청년수당이 어려운 구직환경에 있는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지원을 원하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군산=지승길 기자